

9 초 77

빛속 번개 질주

볼트 세계육상선수권 100m 4년만에 우승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7·자메이카)가 ‘제14회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예상대로 가볍게 우승을 차지했으나 기대하던 세계신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볼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 레이스에서 9초 77의 기록으로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을 되찾았다.

총성후 스타트 블록을 치고 나가는 스타트 반응시간은 0.163초로 8명의 주자중 5번째에 불과했으나 긴 다리를 이용해 보폭을 넓히는 특유의 주법으로 결승선 40m를 남기고 맨 앞으로 치고 나와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레이스 전부터 내린 비로 트랙이 미끄러워 볼트는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작성한 이 종목 세계기록(9초 58)보다 0.19초 느린 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결승전 3시간 전에 열린 준결승에서 양쪽 다리에 빠근함을 느낀 것도 신기록 수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볼트는 이번 대회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기록을 세우려면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하고 날씨 등 여러 조건도 좋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의 말마따나 날씨와 몸 상태가 도와주지 않은 탓에 100m 신기록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볼트의 기록 행진이 정체를 빚으면서 꿈의 기록이라는 9초 4대 진입도 4년이 나 지체되고 있다.

실제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기술과 날씨의 완벽한 조화속에 겨우 100

m, 200m 기록을 깼다. 2008년 5월 열린 뉴욕 육상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인 9초 72를 찍고 해상 같이 등장한 볼트는 3개월 후 중국 베이징 귀자타위창(國家體育場)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100m 결승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9초 6대 진입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9초 6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당시 대회 조직위원회는 비가 오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기상 상태를 조정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울였고 기술적으로 이미 정점을 찍은 볼트는 화창한 날씨 속에 기록을 0.03초나 줄였다. 아사라 파월(자메이카), 타이슨 게이(미국) 등 경쟁자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굳힌 그는 이듬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도 청명한 날씨를 등에 업고 100m와 200m에서 각각 9초 58, 19초 19라는 세계신기록으로 정상에 재확인했다.

볼트의 성장세를 볼 때 100m에서 9초 3~4대를 기록하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낙관론이 대두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볼트는 약점인 스타트 반응시간을 줄이지 못했다. 이날 스타트 반응시간은 4년 전 세계신기록 수립 당시 스타트 반응시간(0.146초)과 비교하면 0.017초나 느렸다.

그는 또 2009년과 2012년에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난해에는 허벅지 근육통에 고전하는 등 큰 대회를 앞두고 완벽하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볼트의 세계대회 3연패가 걸린 200m 결승은 18일 오전 1시 10분 열린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4회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경쟁자 저스틴 게이틀린(미국·왼쪽에서 두번째)을 따돌리고 막판 스피트를 하고 있다. 볼트는 9초 7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18일 오전 1시 10분 열리는 200m 결승에서 자신의 최고기록(19초 19)을 같이치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KIA 4강 실낱 기대 “SK 잡아라”

프로야구 전망대

“팀 추락 더이상 안돼”... 양현종·김광현 좌완 맞대결 분위기 반전 성공... 홈에서 두산·LG전 승수 기대

팀의 추락을 막기 위해 돌아온 좌완 에이스 양현종(KIA)과 김광현(SK)이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문학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의 승부를 갖는다. 양현종과 김광현이 선발로 전면에 선다.

‘한국시리즈 챔피언’으로 포효하던 KIA와 SK의 2013시즌은 초라하다. KIA는 50억원에 FA대어 김주찬까지 영입하면서 ‘우승후보’로 주목 받았지만 위기마다 무너지면서 6위까지 추락했다.

SK의 올 시즌도 암담하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세대교체의 엇박자 속에 하위권을 맴돌며 7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 팀은 송은범·신승현과 김상현·진해수를 맞바꾸는 대형 트레이드까지 감행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오히려 트레이드 효과에 집착하면서 역효

과만 나고 말았다.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던 SK의 김상현이 계속된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오기도 했고, KIA의 송은범도 변신이 뒷문 단속에 실패하며 엔트리가 말소됐다.

상위권이 아닌 6·7위 팀으로 만나는 KIA와 SK는 0.5게임차로 근소한 승를 싸움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두 팀의 승부에 좌완 에이스가 나선다.

88 동갑내기 양현종과 김광현은 청소년 대표로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필성부른 덕이다. 2010년에는 다승왕 경쟁을 벌이기도 한 친구이자 라이벌이다.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도 승승장구 했지만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시련의 시기를 보냈다.

2013시즌은 두 선수에게는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해였다. 양현종이 먼저 시즌 첫 경기에서

부터 승리를 거머쥐면서 부활을 알렸다. 2년의 부진과 어거 부상을 털고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KIA의 초반 질주를 이끌었다.

양현종에 비해 김광현의 올 시즌은 더뎠다. 어거 재활과 함께 구단 자체 체성분 테스트 탈락으로 혹독한 캠프를 치렀다. 4월17일 시즌 첫 출격 이후 세 번째 등판이었던 5월7일 마수같이 승을 챙겼고, 두 번째 승을 챙기는 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등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다.

7월 이후에는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다. 9승을 수확하며 잘나가던 양현종이 갑작스런 열구리 부상으로 마운드를 비워야 했다. 반면 김광현은 조금씩 구위를 찾아가면서 7월 세 차례의 등판에서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8일 넥센과의 등판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7승을 기록했다.

프로야구 종간순위 (8월 12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89	54	33	2	0.621	0.0
2 LG	91	55	36	0	0.604	1.0
3 두산	91	49	40	2	0.551	6.0
4 넥센	91	48	41	2	0.539	7.0
5 롯데	89	45	42	2	0.517	9.0
6 KIA	87	41	44	2	0.482	12.0
7 SK	88	41	45	2	0.477	12.5
8 NC	91	35	53	3	0.398	19.5
9 한화	87	26	60	1	0.302	27.5

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후반기 스타트를 끊은 양현종은 1회부터 4점을 내주며 속쓰러운 복귀전을 치렀다. 오랜만에 선 마운드, 부담감도 더해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양현종의 활약이 절실하다. 멀어지지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4강 싸움, 극적인 삼성전 연패 탈출로 끓어오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KIA의 마지막 반격 키워드는 ‘선발야구’다. 지난해 가을 막바지 스피트를 이끌었던 ‘선발야구’는 2연전으로 전개되는 일정에서의 볼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싸움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그 시작점에 양현종이 선다.

한편 KIA는 SK원정에 이어 15일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과 2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신바람 야구 LG와 군산에서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괴물’ 류현진

신인왕 경쟁

밀러 보다 낫다

美 스포츠 전문매체 SI 평가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신인왕 경쟁자인 켈비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보다 인기는 떨어지지만 기록만 봤을 때는 더 낫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뛰는 ‘괴물’ 류현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SI는 이번 주 ‘주목할만한 신인’으로 류현진을 꼽으며 “야시엘 푸이그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았다더라면 류현진은 올해 신인왕 후보 1순위를 올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SI는 류현진이 올 시즌 11승 3패를 달리며 평균 자책점 2.93(실제로는 2.99)을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특히 6월 이후 패배한 적이 없고 후반기가 들어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2.55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밀러(11승 7패·평균 자책점 2.89)에 비해서 인기는 덜하지만 기록으로

봤을 때는 밀러만큼 좋거나 패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같은 팀 동료인 ‘괴물 루키’ 푸이그에 가려 스포츠 라이트를 덜 받지만 류현진의 활약은 푸이그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류현진은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 등과 함께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꾸민듯 지켜며 팀이 내세워질 그 서부지구 최하위에서 1위로 반등하는 것에 기여했다.

신인 투수 중 가장 주목받는 밀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세부기록을 보면 피안타율은 류현진이 0.252, 밀러가 0.227.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류현진이 1.25, 밀러가 1.14다.

하지만 퀄리티 스타트에서는 류현진이 16차례로 9차례에 머문 밀러에 앞선다. 승률 또한 0.786으로 밀러(0.611)보다 낫다. /연합뉴스

톡&Talk

삼성전 지독했던 연패를 끊은 뒤 라커룸에서는 “원정갈 때 유니폼 입고 가면 안되냐?”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전설의 유니폼’이 마법을 부렸다. 지난 11일 무등경기장에 타이거즈의 거침없던 기세를 대변하던 검정 바지와 빨간 상의, ‘검빨 유니폼’이 부활했다. 올드 유니폼 데이가 열리면서 선수들이 ‘전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일찌감치 유니폼을 꺼내입고 덕아웃을 들쭉이게 했을 선수들이지만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었다. 뭘 뭘 말 듯 풀리지 않고 있는 후반기, 믿었던 김진우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삼성전 11연패, 또 이날 상대가 0.78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챙겨간 윤성환이었다.

광광한 기싸움의 균형을 깬 것은 ‘검빨 유니폼’이 가장 근사하게 어울린 안치홍이었다. 2회 2사에서 안치홍은 윤성환의 직구를 잡아당겨 장외홈런을 만들어냈다. 잘 던지던 소사의 갑작스런 난조로 1-4로 승부가 뒤집힌 4회말에는 이번

‘검·빨’ 유니폼의 마법?... 삼성 징크스 깨고 자신감 ‘업’

효과 선두타자로 나와 역시 같은 코스로 공을 넘기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다시 3점 차로 벌어진 6회 2사 2루에선 최희섭이 볼넷을 골라내며 ‘KIA 길러’ 윤성환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팔꿈치 수술 후 그라운드에 막 부귀한 이종환이 1군 첫 경기에서 안치홍을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유니폼이 없어서 투수 김중훈의 상의와 포수 김상훈의 바지를 입고 뛰어야 했던 이종환의 극적인 활약이었다.

쉽게 피리를 내리던 KIA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상대가 당황했다. 중견수 배영섭의 송구 실책에 이어 2루수 조동찬의 공을 빠트렸다. 결정적인 실수는 베테랑 진갑용에게서 나왔다.

8회 1사에서 안치홍이 볼넷으로 출루해 도루로 2루를 밟았다. 이종환의 땅볼로 2사 3루, 진갑용의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안치홍이 역전 득점을 만들었다. 9회말에는 마무리를 자처한 에이스 윤석민이 등장해 1점차 승부를 지켜내며

극적인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배들의 자랑스런 역사가 담겨있는 유니폼을 입고 꼭이기고 싶던 상대를 무너트렸던 만큼 라커룸은 축제 분위기였다.

승리의 주역이 된 안치홍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 경기 전에 서로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더 집중하고モチ게 된 것 같다”고 수줍은 고백을 했다.

이기고 싶다는 간절함 뒤에는 ‘자신감’도 있었다. 안치홍은 “윤성환과 경기를 했던 영상을 봤다. 그동안 실투가 많았는데 우리가 못 친 것이 많았다. 처음에 어렵게 경기를 해서 괜히 우리가 스스로 말린 것이다. 보통 투수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윤성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타석에 선 타자들. ‘검빨 유니폼’은 야구에서 가장 큰 무기인 자신감을 더해줬다.

선수들은 타이거즈라는 자부심을 안겨준 유니폼을 챙겨들고 SK와의 원정에 나설 생각까지



‘검빨 유니폼’ 입은 김주형(왼쪽)과 최희섭 선수.

했다. 필차상 없던 일이 되기는 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강렬한 유니폼 색처럼 한껏 달아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